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5/08/25~2025/08/31]

2025.09.01

[로봇] 부진한 실적 흐름

- 노란봉투법 효과로 로봇주 일시적 반등. 자동화 확대는 중장기적 방향성
- 로보티즈의 1,000억원, 그리고 알에스오토테이션의 400억원 유상증자. 성장을 위한 투자
- 엔비디아가 드디어 젠스 토르를 출시. AI 처리 속도 7.5배, 에너지 효율은 3.5배 향상

[방산] 기대해야할 모멘텀

- 러우 종전 이야기는 점점 멀어지는 중. 푸틴-젤렌스키 양자 회담 시한은 9월 1일로 추정
- 2025년도 국방 예산안 66조원. 전년대비 5조원 증액. KF-21 스텔스화 등 투자
- 폴란드 국방비 내년 GDP 비 4.8% 일본 8.8조엔 사상 최대. 해외 방위비 예산 속속 공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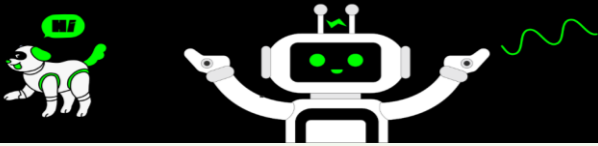
[항공] 대한항공의 대규모 투자 계획

- 대한항공의 70조원 투자. 중장기 기재 계획에 기반한 선제적 발주
- 항공사들 공정위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수요-공급 불균형 초래 불만 제시
- 미국 대표 LCC 스피릿은 다시 한 번 파산 보호 신청

[조선] 다시 한 번 방산으로

- 한미 조선협력(MASGA) 본격화. 조선 3사 모두 참여. 삼성중공업도 MRO 진출
-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그리고 미국의 반스톨레프슨 법안 우회 추진 소식
- 결국 중국에 컨테이너선 발주를 준 CMA-CGM. 미국 USTR 조치의 효과는 끝났나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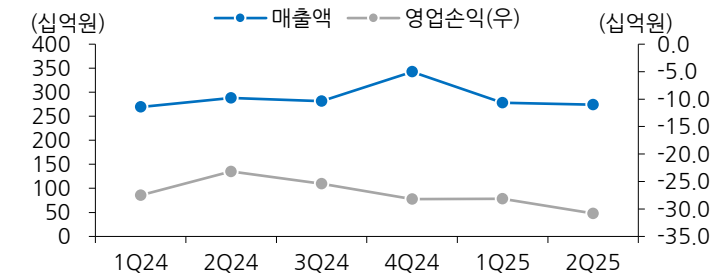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94)

[부진한 실적 흐름]

- 지난 2분기 주요 로봇 기업들의 합산 실적은 매출액 2,739억원(-5%yoy), 영업 손익 -308(적자확대yoy)억원을 기록. 매출액 기준 성장한 기업은 레인보우로보틱스(+96%yoy), 큐렉소(+24%yoy), 라온테크(+30%yoy), 에스비비테크(+13%yoy), 엔젤로보틱스(+7%yoy). 역 성장을 기록한 기업은 두산로보틱스(-69%yoy), 유진로봇(-64%yoy), 케이엔알시스템(-60%yoy), 뉴로메카(-53%yoy), 로보스타(-29%yoy) 등. 여전히 정체된 실적 성장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주가 흐름은 노란봉투법 및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이슈로 반등 후 로보티즈/알에스오토메이션 유상증자 공시로 하락 전환. 단기적으로는 실적 기반 펀더멘탈 관점보다는 큰 그림과 모멘텀 중심 접근 유효할 것. 큰 그림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양산 관련 부품 밸류체인 활성화, 모멘텀은 9월 말 로봇 학회 및 중국 유니트리 IPO 등 관심.

Key Chart: 한국 로봇 기업 실적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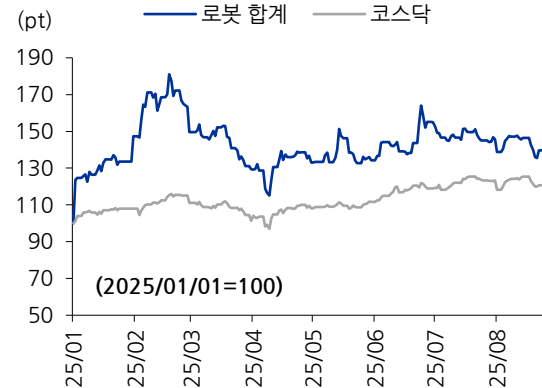
자료: Quantiverse, 유진투자증권

Weekly Key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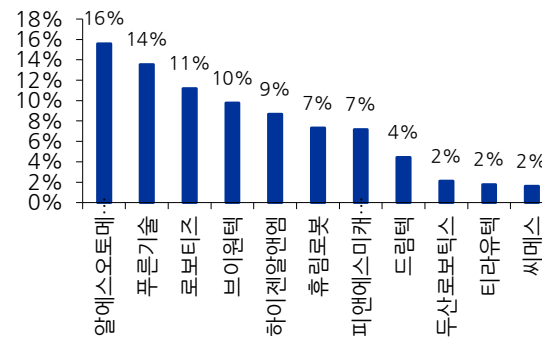
부진한 실적 흐름

국내 로봇 기업들의 실적 흐름은 2분기에도 부진했음. 매출 감소하고 손익은 더욱 악화. 단기 관점 펀더멘탈 개선 기대보다는 큰 그림에서 부품 공급망 관심 필요하고, 모멘텀 중심 접근 유효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iverse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로봇 주요 뉴스(08/25~08/31)

[서비스 로봇]

- 로보티즈-씨메스 '로봇 동맹' 물류전용 휴머노이드 개발
- 현대위아-현대엘리베이터, '로봇 주차' 시스템 공동개발
- 배송로봇 와트, 日 아마토운수와 실증 나서

[기타(정책/부품/SW)]

- 현대모비스 로봇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 액츄에이터 제조
- 현대차그룹, 미국에 로봇 공장 만든다. 7조 원 추가 투자
- 로보티즈, 1,000억원 주주배정 유증. 중앙아 거점 투자
- 알에스오토메이션, 40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 노란봉투법에 무인·자동화 가속. 로봇株 강세 기록
- 국내 로봇기업 상반기 실적, 매출·수익성 모두 '빨간불'

[Global]

- 엔비디아, 로봇칩 '젯슨 토르' 출시. AI 처리 속도 7.5배
- 테슬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훈련 전략 전면 수정
- 보스턴다이내믹스 스팟, 아메리카 갓 탤런트 본선 올라
- 갤럭시, 휴머노이드에 엔비디아 젯슨 토르 채택
- 中 두보트, 협동 로봇 출하대수 10만대 돌파
- 中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1만 대 공급 계약 체결
- 中 애지봇, 바퀴형 양팔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 中 호텔 로봇 사업 원지테크 3년 간 1600억 손실
- 테크맨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TM 익스플로러 I' 공개
- 중국 리얼맨, 베이징에 로봇 데이터 교육 센터 개소
- 日 후지쯔, 양자컴퓨터로 로봇 제어 계산 50% 단축



Weekly Keyword

기대해봐야할 모멘텀

러-우 휴전 가능성이 요연해지면서 다시 한 번 방산에 주목 필요. 이번 주 폴란드 MSPO, 월말 한나토 방산협약체 출범, 2026년도 국방 예산안 공개 등 기대해볼 재료들 다수 존재.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42)

[기대해봐야할 모멘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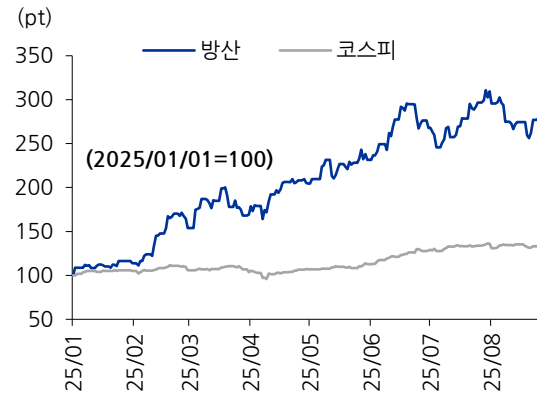
- 러-우 휴전 이슈로 부진한 흐름을 기록했던 방산 섹터이지만, 아래와 같이 흐름을 반전시킬 다수의 이벤트가 대기 중. 러-우 휴전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해짐. 러-우 양자 회담 기일은 9월 1일로 알려져있음.
- 폴란드 MSPO(9/2~9/5): 유럽 최대 규모 전시회. 폴란드 천무 현지 양산 계약, 오르카 프로젝트, K-9 2-2차/K-2 3차 양산 등 구체화 기대.
- 한국-나토 방산협약체 출범(9월 말): 고가시성 프로젝트(나토 집단 방위를 위해 동맹국 전력 공동 개발/획득) 한국 참여 논의 등.
- 2026년도 예산안 공개: 이미 한국, 일본, 폴란드, 대만 등 내년도 국방 예산 윤곽나오는 중. 미국, 유럽 등 내년 예산안 공개되면서 추가 수주 파이프라인 부각 가능성 주목.
- ADEX(10/20~10/24): 항공우주 & 방위산업 전시회. 항공 관련 수주 모멘텀, 무인기 관련 사업 기대감.

Key Chart: 2026년 한국 국방 예산안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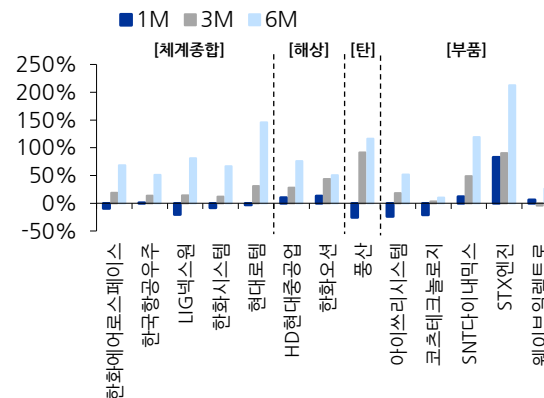
구분	25년	26년	내용
전력 운영비	43.4조	46.1조	초급간부 내일준비적금(+0.03조) 급식단가 인상 등(+0.1조)
방위력 개선비	17.8조	20.2조	KF-21 양산 및 스텔스 전투기 연구(+1.1조) 첨단무기 전환 위한 국방 R&D(+0.9조) K-방산 육성 지원(+0.2조)
합계	61.2조	66.3조	전년비 +8.2%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방산 주요 뉴스(08/25~08/31)

[수주/계약]

- 韓 전투기 도입 검토하던 이집트, 中 J-20 도입 추진
- 말레이 국왕, 헬리콥터 도입사업 개입 선언. KAI '촉각'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루마니아 방산전시회 최대 후원사로 나서
- KAI, 'AI-전자기전 특화연구센터' 개소
- KAI, 천리안 5호 UG넥스원 우협 선정 불복 소송
- KAI 노조 "사장 공백에 수천억 수출 협상 결론 못내려"
- 고려아연, 록히드마틴에 방산 소재 게르마늄 공급

[기대]

- 내년도 국방 예산 66조 원. KF-21·A·드론에 집중 투자
- 한·영 국방차관, 국방·방산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하기로

[글로벌]

- 러 "우크라 안전보장 위한 유럽군 배치에 부정적"
- 백악관 "트럼프 종전 원하지만 러-우크라, 준비 안 된 듯"
- 美, 우크라에 장거리 미사일 판매 승인. 유럽 자금 제공
- 폴란드 내년 국방비 GDP 4.8%. 나토 1위
- 英 "이스라엘 정부 런던 무기박람회 참여 금지"
- 스웨덴, 분쟁 이유로 태국 그리펜 판매 재검토 후 재승인
- 美 상무 "방산업체 자본 인수 논의" 록히드마틴도 거론
- 미국 공군 드론 윈맨 프로그램 YFQ-42A 시범 비행
- 튀르키예 방산 아셀산, 신규기지 2조 투자. 생산능력 2배로
- 튀르키예 BMC, 한국산 파워팩 장착한 알타이 올해 인도
- 日 방위비 내년 8.8조엔 사상 최대. 3천억엔 무인기 투자
- 日 스탠드오프 미사일 도입 조기 추진. 구마모토 배치



Weekly Keyword

대한항공의 대규모 투자 계획

대한항공이 70조원 규모의 대규모 항공기 및 엔진 투자를 공개. 통합항공사 관점에서 향후 퇴역/교체 기재들을 고려하면 과도한 수준이 아님. 현 270여대 기단 규모에서 300여대로 증가 전망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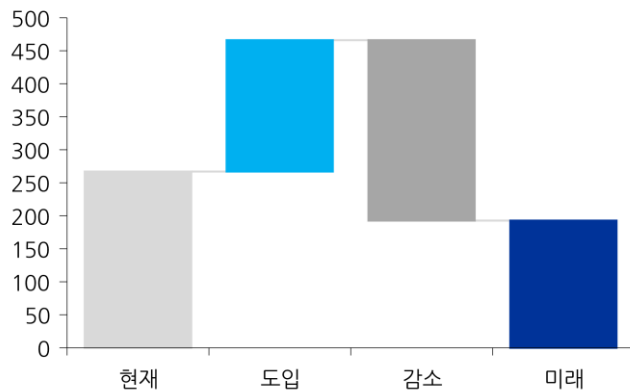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42)

[대한항공의 대규모 투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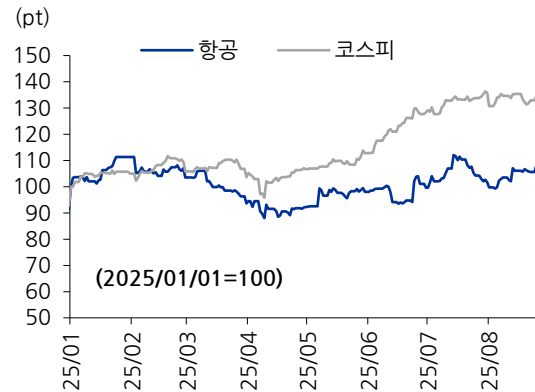
- 대한항공이 7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개. 보잉 항공기 및 예비 엔진을 대량으로 확보 예정. 신규 항공기로 B777-9 20대, B787-10 25대, B737-10 50대, B777-8F 8대를 2030년대 말까지 조달할 계획임.
- 합산 100대 이상의 규모이나, 통합 항공사(FSC, LCC) 관점에서, 향후 퇴역/교체될 항공기 규모를 고려하면 결코 과도한 수준이 아님. 항공기 공급 병목 상황과 규모의 경제 효과(할인)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선택적 투자 결정. 현재 통합 FSC 및 LCC 기준 270여대 기재 보유 중. 향후 퇴역 및 기단 효율화 고려하면 기존 도입 계약 및 이번 추가 투자 고려해도 300여대의 기단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함.

Key Chart: 대한항공 그룹 기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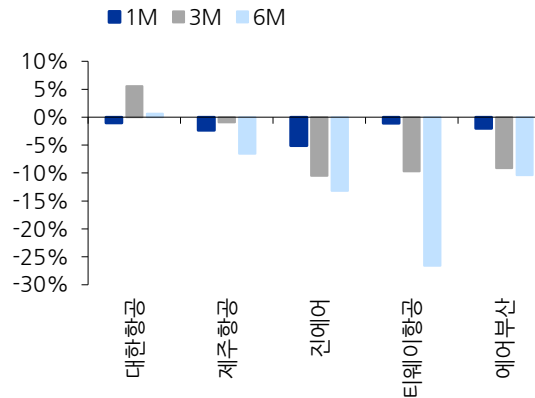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8/25~08/31)

[여객/화물]

- 가을 '늦캉스' 증가. 9월 항공 수요, 감소폭 줄며 회복세
- 이집트 대표 항공사 에어카이로 한국 공략 본격화
- 서울 - 그리스 아테네 직항 개설 추진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70조 투자. 보잉기 103대 및 예비엔진 도입
- 대한항공, 日 하네다공항서 지상 조업 직접 운영
- 대한항공, 8,302억 규모 '블랙호크' 성능개량사업 수주
- 대한항공, 회사채 3000억 추가 발행
- 광 노선 수요 부진 속 공정위 조치로 증편하는 대한항공
- 아시아나, LA-인천 노선 오전 시간대로 스케줄 조정
- 제주항공 "내년 3월까지 광 노선 중단" 예약객들 불만 확대
- 파라타항공, 2027년 A350 여객기 도입 추진
- 파라타항공, 시범비행 끝났다. 9월 상업 취항
- 이스타항공, 29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1000만명 돌파

[기타]

- 공정위, 과도한 시장 개입. 항공사 "수요공급 불균형 초래"
-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5.7% 증가
- 기내 보조배터리 비닐백 대신 선반에 '온도 감응 스티커'
- 추석연휴 김포-제주 대한항공 '마일리지 특별기' 뜀다

[글로벌]

- 美 항공사, 체적 큰 승객은 추가 좌석 구매해야
- 美 LCC '스피릿' 5개월 만에 다시 법원에 파산보호
- "조종사 정년 67세로" 국제기구에 연령 상한 상향 요청
- 미국과 갈등 속 '인도-중국' 직항편 재개



Weekly Keyword

다시 한 번 방산으로

CMA-CGM이 중국에게 컨선 발주를 결정. 미국 USTR 조치 효과가 약화되는 가운데, 상선 업황 불확실성 확대. 다행히 미 군함 국내 건조, 캐나다 잠수함 등 합정 관련 모멘텀이 재차 부각되는 중.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22)

[다시 한 번 방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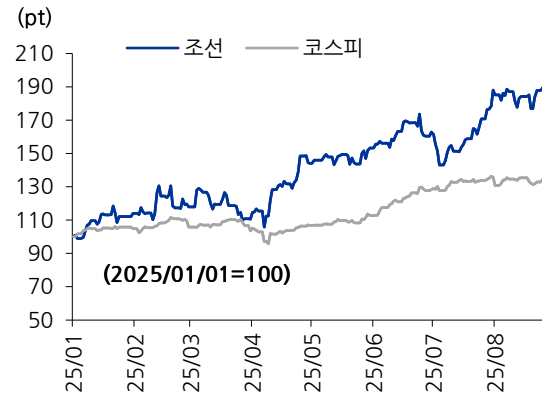
- 한-미 정상회담 이후 다시 한 번 조선업종의 관심은 방산(특수선)으로 옮겨가고 있음. 상선에서도 다수 수주 파이프라인이 깔려있지만 (LNGC 벤처글로벌 12척, 컨선 머스크 12척, 에버그린 14척, HMM 12척 등), 프랑스 CMA-CGM이 지난 주 컨테이너선 10척을 중국 DSIC(CSSC 산하 다렌조선중공업)에 발주를 결정(척당 210M USD)하면서, 연초 미국 USTR의 중국 조선 견제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고 있고, 중국 조선소의 전년대비 수주 급감에 따른 선가 경쟁 심화 우려가 부각되는 중. 다행히 미국 군함의 한국 건조 가능성(반스-톨레프슨법 우회)이 제기되고 있고,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최종 후보(vs TKMS)에 선정되는 등 특수선에서 기대할 재료들이 나오고 있음.

Key Chart: 한-미 조선 협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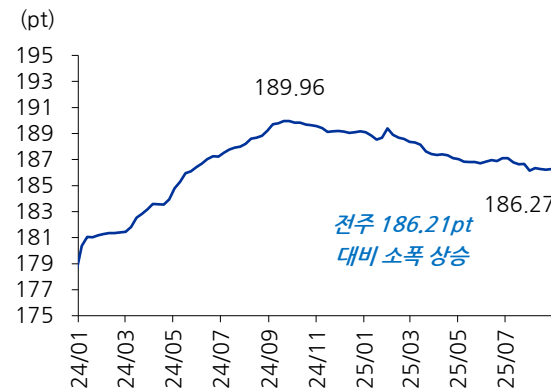
조선사	미국 조선 사업 내용
HD현대중공업	■ 서버러스캐피탈과 한미 조선 공동투자 프로그램 조성 MOU ■ 서울대와 미국 조선산업 인재 육성 추진 ■ 미 해군 MRO 수행 중(앨런 셰퍼드)
삼성중공업	■ 비거마린과 미 해군 지원함 MRO MOU ■ 미국 파트너 조선소 물색 후 공동 건조 추진
한화오션	■ 미국 필리조선소 50억불 투자 발표 ■ 필리조선소 외 미국 추가 투자 가능성 ■ 미 해군 MRO 수행 중(3번째 진행 중)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8/25~08/31)

[상선/해양]

- 한화, 미국 필리조선소에 LNGC와 유조선 11척 발주

[특수선]

- 미국, 반스톨레프슨법 우회 위한 행정명령 검토
-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최종 후보 선정. 10월 거제 방문
- 한화오션, 폴란드 MSPO 출격. 오르카 수주 사활
- 방사청 "KDDX 경쟁계약, 한화오션에 특혜될 수 있다"
- HD현대중공업 아르헨티나 잠수함 수주 영업 활동

[기타]

- HD현대중공업·미포 합병. 2035년 방산 매출 10조
- 이 대통령, 한화 필리조선소 안보선 명명식
- 삼성중공업, 美 조선사 비거 마린과 MRO 협력
- 한미 조선 협력 추진에 美 노조 "해위 건조는 해고 통지서"
- HD현대, 한미 조선산업 투자 프로그램 조성
- 한화, 필리조선소 50억 달러 투자. 연 20척 건조 능력 확보
- HD현대중공업 노조, 임단협 난항에 반발. 부분 파업 돌입
- 한화엔진, 세계최초 LNG운반선용 VCR 적용엔진 생산
- KOGAS, 28년부터 10년간 미국 LNG 330만톤 도입

[글로벌]

- Shell, LNGBV 신규 건조 2척 발주 추진
- CMA-CGM, 중국 DSIC에 22kTEU 컨테이너선 발주
- HD현대, '모로코 조선소 수주' 스페인과 2파전